



아름다운 기와 문양을 직접 탁본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에 가면...

"나는 첨성대 조각을 맞춰야지"(전승철, 화랑초 3)
"난 고선사터 3층 석탑. 누가 빨리 만드나 내기하자."(장우혁, 화랑초 3)
승철이는 첨성대 조각 맞추기를 시작했는데 좀처럼 잘 맞춰지지 않아 심각하다. 우혁이는 벌써 탑 모양이 완성돼 가는데 말이다. 첨성대와 고선사터 3층 석탑 모형조각을 맞추는 승철이와 우혁이

가 특별전시관 지하에 수장고로 이용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어린이 박물관으로 꾸며놓았기 때문이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알록달록한 실내디자인으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220여 평의 공간은 보고 듣고 만지며 옛 신라시대 조상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으로 가득하다.

국립박물관으로는 두 번째이자 영남



헤드폰을 끼고 고대설화를 듣고 있는 어린이들.

보고 만지고 찍고 조상들 지혜에 '흠뻑'

의 모습에서 옛 신라 조상들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이것 봐, 멋있지? 이것이 '귀면'이라는 거야. 내가 만들었다."(최윤아, 계림초 2)

설화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진(계림초 3)이가 윤아의 자랑에 열린 기와 만들기 코너로 달려갔다. 윤아는 유진이 끼고 있던 헤드폰을 열려 받아 끼더니 금세 재미난 설화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설 연휴기간동안 국립경주박물관의 특별전시관 지하는 어린이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김성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관한 어린이 박물관은 입구를 지나 들어서면 중앙에 제일 큰 홀인 체험 학습실이 보이고, 우측에는 강당 좌측에는 공작교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체험 학습실은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내주는 힌트를 이용해 문화재퀴즈에 도전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형태로 꾸며져 있고, 그 중앙을 중심으로 '놀이로 체험하기', '컴퓨터 속으로의 문화여행', '직접 만 들어 가져 가세요' 코너가 마련돼 있다. 강당은 1954년에 문을 연 경주어린이

박물관의 수업을 위해 마련됐는데, 토요일 수업시간에는 어린이들이 도서 열람과 인터넷검색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대형프로젝트가 마련돼 있어 간단한 공연이나 영화상영도 가능하다. 공작교실은 주말이나 공휴일 전문 강사와 함께 여러 가지 전통 공예품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진행된다. 어린이들에게는 최고의 학습공간이자 놀이공간인 셈이다.

지난 1월 31일 열린 어린이 박물관 개관식. 경주국립박물관 김성구 관장, 경상북도 경주시 교육청 김동훈 교육감, 포항시 교육청 유권재 교육장을 비롯한 지역 교육 일선에 있는 선생님과 학부모 어린이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하지만 행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벌써부터 박물관 구석구석을 누비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만큼 어린이 박물관은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식이 끝나자마자 첨성대 블록 쌓기를 해야지."

희철이는 교육감 선생님 뒤에 보이는 블록조각에 이미 시선이 고정돼 있다.

마침 설화이야기 코너 옆에 자리 잡은 기막히는 개막식 도중에도 헤드폰을 끼고 있다. 교육감 선생님의 축하 말보다는 설화이야기가 더 재미있는 게 사실이다.

개막식이 끝나자마자 어린이들은 순식간 박물관 곳곳에 흩어져 관람과 체험을 시작했다. "무엇을 할까?" 이리 거웃, 저리 거웃 눈치만 살피는 친구도 있었다.

기울이는 첨성대 모형 블록 쌓기에 도전했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옆에 친구가 이렇게 저렇게 훈수를 두는 통에 더 험갈린다. 토기 조각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친구랑 같이 머리 맞대고 하니까 그 재미가 쏠쏠하다.

21세기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가 빠질 수 없다. 컴퓨터 게임을 통해 문화를 배울 수 코너가 또 인기다. 부처님의 손 모양과 신라문자 알아 맞추기, 무덤에서 출토된 금관과 금제 허리띠장식으로 왕과 왕비꾸미기 놀이도 재미있다. 신라 노래방에서는 서동요, 풍요, 현

화가 등 신라화가를 흥얼흥얼 따라 부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직접 만들어 가져가기' 코너. 어린이들은 소매도 견어붙이고 점토로 신라 문양 찍기에 여념이 없다. 연필이랑 종이만 있으면 성덕대왕신종 모형에서 아름다운 무늬를 얼마든지 재현할 수도 있다.

어린이박물관 개막식을 보러 온 경주 지역 어린이들은 두드리고 찍고 만지고 하는 동안 어느덧 우리조상들의 지혜와 미에 흠뻑 젖어들었다. 동생 수진(3학년)과 함께 온 양혜리(용광초 6) 양은 "성덕대왕 신종의 무늬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고 말했다.

어린이박물관을 기획한 정성희 담당 학예연구관은 "경주가 옛 신라문화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신라문화박물관이라는 특징을 살려 어린이들이 신라의 문화와 문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찰흙으로 기와를 만들었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그리고, 신라 노래(항가)듣기도 좋았다. 어린이 박물관이 생겨서 너무 좋다." (강진님, 화랑초 6)

이날 어린이들은 돌아가면서 입구에 마련된 노란 열서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과 바라는 점에 대해 글을 남기고 돌아갔다.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물음도 남겼다.

어린이 박물관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어린이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어린이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답장도 보낸다. 이것이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또 다른 자랑이다.

경주박물관은 50년 넘게 이어온 어린이박물관학교도 계속 운영하며,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만들기 교실을 개최하고, 여름 어린이 박물관 교실, 낙도 오지 어린이 초청 박물관 체험 교실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게임이나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글=배지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선생님과 함께 모형 석기탑을 만드는 어린이.



어린이들이 토기 조각 맞추기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지하 수장고 개조, 어린이 놀이·학습공간 마련
퀴즈·공작교실·컴퓨터 문화여행 등 코너 다양
신라의 역사, 문화 체험 통해 쉽게 배울수 있어

■ 어린이박물관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면

어린이박물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4회로 나누어 운영한다. 월요일은 휴관하며, 토요일 오후에는 박물관학교 강의가 이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체험시간은 1시간 30분이며, 1회 입장가능 인원은 50여명 정도. 따라서 체험을 원하는 학생은 최소한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은 전화로 하거나 현장에서 가능하다. 입장은 무료이며, 프로그램에 따라 1천원 가량의 재료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 (054)740-7591, 740-7538(월요일에는 이 전화로만 예약 가능)
<http://gyeongju.museum.go.kr>



연필과 종이를 이용해 성덕대왕 신종의 무늬를 탁본하고 있는 어린이.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 730-0705**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여행경비: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자	교통	일정
1일	CZ686 CZ3962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신사 순례 및 대련 관광/정주로 이동
2일	전용버스	개봉-용정, 첩담, 포공사 관광
3일	전용버스	소림사, 탐림, 백마사 순례
4일	CZ3961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5일	CZ685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팀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자	교통	일정
1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3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일	전용버스	삼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5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팀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오와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 (매주 약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워불사, 담겨사, 오와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전불동, 영암사, 잠산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팀 불포함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